현불 논단

LH사태와 인과응보
〈因果應報〉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LH임직원 토지투기 사회적 충격
내부 정보 활용한 조직화 의혹도
국회, 처벌 관련법 입법화했지만
부동산투기의 근본 대책은 묘연

정부 일방적 개발방식의 부작용
실패 요인은 현정부 문제 아냐
부동산 향한 사회적 인식 지적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야

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로 사회 전체가 불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LH 임직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투기와 관련한 처벌법은 일부라도 만들어진 모양새이지만, 실제 그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선점한다는 것은 '막대한 투기 이익'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은 유혹일 수밖에 없다.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며, 신도시 개발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내부 비밀 정보의 선점을 통해 얻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한다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개인은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구조를 묵인해온 정책적 대응은 질타 받아야 마땅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일방적 개발방식이 부른 사회 전체의 부작용을 도외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0년 개발의 역사에서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가 실패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를 물어보면 그 대답은 자명하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개인을 방조하고 또 편승해왔기에 일어난 결과가 LH 사태라고 해도 쉽게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아파트 불패'라는 시중 격언이 그래서 나왔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는 젊은 청년들의 자조 섞인 푸념도 근원을 따지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평생을 노력하고 일해서 받은 봉급으로는, 한 푼 사용하지 않고 모아도 접근이 불가능한 집들이 우후죽순이다. 주거비용만으로도 이번 생에는 만회할 방법이 없어서 나오는 소리다. 주거비용을 감당하는 것에 이번 생을 저당 잡혔으니 나오는 말이 '이생망'이다.

LH 사태에서 투기 내력이 밝혀져 처벌되는 사람에게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물어보자. '이생망'을 자조적으로 읊조리는 이 땅 청년들의 탄생이라는 과보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의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청년들의 절망을 만들어내는데, 투기하지 않고 투기에 편승한, 그리고 집값 상승의 불로소득을 즐겁게 받아들인 나머지 땅주인, 집주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부처님은 삶에 주어지는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어느 것도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다.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호응하여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과보로서의 사회현실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고는 있지 않았던가?

인과응보의 호응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이다. 좋은 원인을 제공했으면 좋은 결과를 받고, 나쁜 원인을 제공했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법이다.

악업을 지은 자가 나쁜 과보를 받는 것도, 선업을 지은 자가 좋은 과보를 받는 것도 당연해야 한다. 우리가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이득을 누리며 응당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개인도 그러한 투기판을 만든 정책도 스스로 '공정'이고 '정의'이며 '합당한 이익 실현'인양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서로 다른 계층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이생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과응보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성취하려면 너무나 자명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社 說

재한 미얀마 유학생에 관심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두 달이 지났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얀마 사태에 한국 국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사뭇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5.18 광주항쟁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들의 처절한 행동과 이를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탄압이 닮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평화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의 모습도 우리의 과거에 투영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의 처참한 상황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교계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미얀마는 국민의 90% 가량이 불자이며 사람들의 삶과 일상 속에 불교가 깊이 스며있는 불교국가다. 승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군부의 횡포에 미얀마의 정신적 스승인 고승 40여 명이 사찰에 연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원기금 모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지 은행업무가 마비되면서 실제 전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 외화 송금 제한으로 본국 가족들로부터 지원되던 학비와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쿠데타가 장기화될수록 생활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얀마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일부 개신교계 단체 및 교회에서 개종을 전제로 장학금 지원을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미얀마 유학생들 역시 상당수가 불자다. 한국에서 본국 민주화를 염원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불교계 관심이 필요한 때다.

혜택 · 재정기간 확대한 승려복지회

앞으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 사미니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는다. 또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 건물 등을 매입 · 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23일 제220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승려복지회의 지출을 승려복지 지원금 및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정한 기존법의 지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종단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된 승려복지기금을 단순히 예치하는 것을 넘어 복지시설 건립 및 부동산 매입을 통한 수익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셈이다.

기금을 부동산 매입 등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은행예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재정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형태의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를 통해 승려복지의 일환으로 스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승려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도 긍정적이다.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닌 사미 · 사미니 스님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라면 입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원확보 방안 확대를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의미있는 노력을 이어가는 승려복지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스리랑카선 맨발 참배가 예절

한국에서는 사찰(절)에 도착하면 대웅전 참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는 사리탑(Dagaba) 참배를 우선시합니다.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셔 놓은 사리탑을 스리랑카 사원에서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에는 비록 사리탑은 없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놓은 사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사리탑을 세우겠다는 발원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원의 진정한 완성은 사리탑이 완공된 이후를 그 기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보리수나무 참배입니다. 오늘날 보리수나무는 붓다의 상징으로 숭배와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보리수나무는 불자들에게 '살아있는 붓다'를 상기시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의식은 코코넛 오일 공양인데 불길한 행성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악운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꽃, 우유죽, 과일, 구장나무, 의약용 오일, 장뇌, 동전 등을 제물로 바칩니다. 향기가 나는 물로 나무를 적시는 의식도 필수적입니다. 향과 장뇌기름을 태우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적절한 시를 낭송하며 한 번 혹은 세 번 나무 주위를 돕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보리수나무 숭배가 가장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로 스리랑카 문화산업 개발에도 이러한 의식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하위하라에서도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 40년을 기념하여 3년 전에 이 보리수나무를 모셔왔습니다. 이에 다음 달은 스리랑카 설날로 이를 기념하여 보리수나무를 신축한 온실에 모셔 놓을 계획입니다. 사찰에서는 아무 보리수나무에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나무의 씨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국가가 승인한 나무만을 모십니다.

세 번째는 대웅전(Vihara) 참배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위와 같은 세 곳을 차례대로 참배합니다. 대웅전에서는 부처님께 아침, 점심 공양을 올립니다. 유독 한국과 달리 스리랑카의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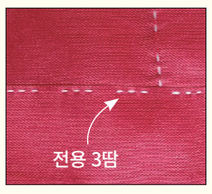
스리랑카에서는 사찰 정문에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양말조차도 신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신는 것이 예의지만 스리랑카 불자들은 벗는 습관이 있어서 한국의 사찰에서 법회를 볼 때 대웅전에서 양말을 벗고 다니는 것은 가장 큰 불교 문화적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이나 스리랑카 불자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에 마하위하라 법당은 불자들 각자 양말을 신든 벗든 익숙하며 편한 대로 규정하거나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찰 마당에서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여성의 경우 짧은 옷이나 노출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사찰에 갈 때 흰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흰옷은 마음의 청정함을 상징하며 평등을 뜻합니다. 한국에서 사찰을 방문할 때 쌀, 초, 과일 등을 부처님께 올리는데 스리랑카 법당에서는 꽃, 향, 초, 코코넛 오일 등을 올립니다. 사찰에서는 위와 같은 예의를 갖추고 예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면서 공덕을 쌓아 올립니다. 윤회를 진실하게 신봉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공덕을 짓는 행위를 통해 내생에 반드시 좋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원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 2565년 건학75주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인격 완성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광동고등학교 교장 이천기
의정부광동고 교장 김석희
광 동 중 학 교 교장 김중철
법인사무국장 정용수
수 석 교 법 사 권준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법인사무국 : 031-572-0559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